

노벨리스, 알루미늄 캔 200만톤 재활용 기록 달성 10년간 탄소 배출 2천만 톤 감축 효과

아시아 최대 영주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, 2012년 설립 이래 1,333억 개 알루미늄 캔 재활용

2022년 3월 21일 -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 노벨리스가 영주공장 리사이클 센터에서 누적 200만 톤의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. 지난 2012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1,333억 개의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한 것이다. 이 같은 대기록을 통해 영주 리사이클 센터가 절감한 탄소 배출량은 2,000만 톤에 달한다. 이는 매년 3억 4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은 수치이다.

노벨리스 영주 리사이클 센터는 폐 알루미늄 캔을 60일 만에 새로운 알루미늄 캔으로 재탄생시키는 무한순환형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. 알루미늄 캔 재활용 규모는 아시아 최대다. 지속적 투자로 현재 연간 34만 톤 규모의 저탄소 알루미늄 시트 잉곳 생산 능력을 갖췄다. 이곳에서는 매년 180억 개 이상의 음료캔이 재활용된다. 노벨리스 영주 공장은 최근 알루미늄 산업의 대표적인 글로벌 표준 인증 기관인 ASI(Aluminium Stewardship Initiative)의 표준을 모두 취득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공인받은 바 있다.

알루미늄 캔 재활용은 천연 자원 채굴과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.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면 채굴한 천연자원으로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할 때에 비해 탄소 배출 규모와 에너지 사용량을 각각 95%씩 절감할 수 있다.

노벨리스는 아시아, 유럽, 북미, 남미 지역에서 첨단 알루미늄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, 매년 740억개의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고 있다. 노벨리스는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알루미늄 제품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한국 내 신규 재활용 센터 건립을 발표했다. 오는 2024년까지 울산에 연 10만톤 규모의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.

사친 사푸테 노벨리스 아시아 사장은 “알루미늄은 무한 반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금속으로 저탄소 순환경제에 이상적인 소재”라며, “노벨리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,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노벨리스는 지난해 4월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하면서 205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, 2026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. 또한, 2026년까지 에너지, 물 사용 각 10% 감축, 매립 폐기물 20% 감축 목표를 세웠다. 이 계획에는 노벨리스가 완전한 자원순환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
###

노벨리스 소개

노벨리스는 “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”는 기업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. 노벨리스는 혁신적인 알루미늄 제품 및 솔루션을 생산하는 글로벌 선두주자이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재

활용 기업입니다. 노벨리스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알루미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북미, 유럽, 아시아, 남미 지역에서 항공우주, 자동차, 음료수 캔, 스페셜티 제품 산업 분야의 고객 및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완전한 순환 경제를 이루는 것입니다. 노벨리스는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순 매출 12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노벨리스는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(Aditya Birla Group)의 알루미늄과 구리 및 금속 부문 주력 기업인 힌달코 인더스트리즈(Hindalco Industries Limited)의 자회사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노벨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www.novelis.com

보도 자료 문의

노벨리스 코리아 오수현 부장: 02-2259-1626, soohyun.oh@novelis.adityabirla.com